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공단지 만들기 적극 협력"	1
江原日報	21면	‘3고’ 속 지역경제 활성화·입주기업 성장 의지 다졌다	1
江原日報	01면	"강원 성장 동력은 사람 ... 특별자치도시대 그 뜻 되새겨"	2
江原日報	01면	강원 발전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	2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 발전 해답은 '인재' 대한민국의 미래 밝혀라	3
江原日報	21면	제18회 동곡상 시상식 참석·축하해주신 분(무순)	4
KBS 춘천	온라인	김기홍 “레고랜드 자산 취득에 추가 혈세 지출”	5
강원도민일보	02면	중개공 적자 추산액 1년새 2배 이상 경총	6
KBS 춘천	온라인	전자철판 사업 질타 잇따라...“감사 요청해야”	7
연합뉴스		강원교육청, 도의회 행정감사서 전자철판 사업 추진 '못매' [...	8
스포츠서울	온라인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전자철판 보급 사업 적절성’ ...	10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자치도의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전자철판 보급'...적절성...	11
케이엠뉴스	온라인	이승진 의원, ‘전자철판 보급 사업의 사전 준비성 부족 및 ...	12
CBS	온라인	'좌초 위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강원도의회, '부지 무...	13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좌초...허술 행정 감사 ...	14
연합뉴스		양숙희 강원도의원 "스쿨존 LED 표지판에 과도한 예산지출...	15
세계타임즈	온라인	“양숙희의원, 자치경찰위원회 행감에서 고가의 가변형 LED...	16
문화매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엄기호 의원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아...	17
한국지방자치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엄기호 의원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아...	18
스포츠서울	온라인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교육청 총액임금제 과...	19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김기하 의원 “강원도교육청 총액임금...	20
세계타임즈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업인 현안 안일...	21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실...	2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농림수산위 '민방위복 행감' 눈길	23
江原日報	02면	“이직 빈번한 강원문화재단 처우 개선 시급”	23
MBC 강원영동		"임신 중 술 강요".. 만연한 직장 갑질[1/2]	24
江原日報	02면	강원문화재단 감사	26

江原日報	10면	홍천중·석화초교 이전 연내 결정	26
강원종합뉴스	온라인	[정치] 이한영 도의원, 행감에서 더 나은 강원 위한 정책 주...	27
강원도민일보	01면	출향 강원도민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기원	28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 출신 공직자 '2024 강원대회' 성공 지원사격	29
강원도민일보	07면	150만 출향도민 강원사랑 열기 활활	29
강원도민일보	07면	강원 동해안 청정 수산물 안전성 전국에 알렸다	30
강원도민일보	07면	도·해수부·수협 '안전 수산물 공급' 3각 공조 다짐	30
江原日報	01면	道, 1조8,000억 투자 지역대학·인재 키운다	31
江原日報	02면	지속가능 대학에 선택과 집중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32
 KBS 춘천	온라인	‘정보화마을’ 3곳 중 1곳은 폐업...“경영악화·실적저조”	33
강원도민일보	01면	반도체 전력·용수 인프라 1조8671억원 추산	34
강원도민일보	02면	원주 반도체생태계 조성 후 국가첨단산업단 지정 추진	3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물가 재정 인센티브로 실효있을지	3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의료원 경영난 정부가 나서야	36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 인재 산실 ‘동곡상’, 특별자치도 미래 밝힌다	37
江原日報	19면	[사설] ‘글로벌대학’ 선정, 이젠 대학 미래 비전 설계를	38

강원도민일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공단지 만들기 적극 협력”

2023년 11월 15일 (수)

인물 22면

강원도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150명 참석 도지사 표창 등 수상

정책혁신·경쟁력강화 협력 다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공단지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최대식)는 14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2023 강원도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최대식 강원도농공단지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는 14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2023 강원도농공단지 기업인의 날’을 개최했다.

협의회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박승균 도기계공업

협동조합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도지사표창, 도의회의장 표창,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표창 등 수

상도 진행됐다.

최대식 회장은 “도내 경기 회복, 농공단지 활성화와 정책혁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같이 힘과 공유하며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후 기반시설 보수, 입주기업 물류비 중점 지원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는 가동 중인 농공단지 44개소, 조성 중인 농공단지 3개소가 있으며 1275개 업체가 입주, 고용인원 2만 156명으로 도내 제조업 기업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선우 woo6745@kado.net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인물 21면

‘3고’ 속 지역경제 활성화·입주기업 성장 의지 다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원도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 최대식)는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2023 강원도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도농공단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최대식 도농공단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한 내빈,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도농공단지 발전에 기여한 권명선 미성식품 대표, 윤병구 자라나라 대표, 이상우 주식회사 티앤시 대표, 이정완 주식회사 디아이 대표, 원나리

‘강원도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스카이컨벤션 웨딩서 개최
권명선·윤병구·이상우·이정완·원나리 대표 등 표창 수상



◇2023 강원도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행사가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장, 최대식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주식회사 현대파크 대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황영균 토다이수주 대표, 김성한 늘푸른

푸드(주) 대표, 이경숙 ㈜봄내 대표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권용석 주식회사 강원네트웍스 대표, 배병철 ㈜동산판넬 대표에게는 한국농공단지협의회 회장 표창을, 김성우 춘천퇴계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장, 임기석 흥천 상오안농공단지협의회 소장이 도농공단지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진태 지사는 격려사에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기업들이 많이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식 (사)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지방소멸이 더해지면서 생산과 소비 등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강원 농공단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leekh@

2023년 11월 15일 (수)

江原日報

종합 01면

“강원 성장 동력은 사람 ... 특별자치도시대 그 뜻 되새겨”

제18회 동곡상 시상식

강원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인사 4명이 최고 권위의 상이자 명예인 동곡상(東谷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는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18회 동곡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발전 부문 전수산(84)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화예술 부문 이유래(66) 춘천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사회봉사 부문 김삼기

수상자에 각각 상금 2,000만원 참석자들 인재 양성 의지 다져

(67) (사)한국늘사랑회 이사장, 교육 학술 부문 민일홍(53) 전인고 교장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자랑스러운 출향강원인 부문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3·21면

이날 시상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장, 최연희 동곡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 회장, 한기호·허영 국회의

원, 육동한 춘천시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박진오(강원일보 사장)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동곡상을 제정한 동곡 김진만(1918~2006년) 선생의 정신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동곡 선생님의 유지는 인재 양성”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대학, 언론과 손잡고 인재 양성에 함께하겠다. 강원도에 인재가 없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하겠

다”고 약속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동곡상은 우리 고장의 숨은 인재들을 찾아내고 공적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수상자 분들 앞에 서니 제 스스로가 작다고 생각했다.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본받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동곡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꿈이 됐고 그 자체로도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저 역시 5년 전 동곡상 지역발전 부문 수상자였고 당시 동곡상이 내린 명령은 아직도 저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오 이사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변화와 성장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은 오직 사람, 인재라는 점을 강조하신 동곡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바로 오늘 동곡상 시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년 11월 15일 (수)

江原日報

종합 01면



강원 발전 위해 헌신한 선구자들

제18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장, 최연희 동곡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 회장,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박진오(강원일보 사장)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 내빈과 각 부문별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기획 03면

강원자치도 발전 해답은 '인재' 대한민국의 미래 밝혀라

수상자들 각 분야서 기여 다짐하며 강원 발전 한마음
고향 변방 이미지 탈피 소망한 김진만 선생 뜻 되새겨

수상자 축하 리셉션

제18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에 이어 열린 수상자 축하 리셉션은 동곡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곡상 수상자들이 걸어온 치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후 진행된 리셉션에서 건배사를 한 최연희 동곡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생각한다. 동곡재단 역시 강원도 인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것이며, 더 많은 사람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강원도 인재 발굴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고 건배 제의를 하겠다"고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이문섭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회장은 "동곡상은 노벨상 못지않은 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강원일보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신나게, 발전하자'를 줄인 '새신발'로 건배사를 제안했다. 이날 새롭게 배출된 네 명의

수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이 변화와 발전 기회를 사람의 힘으로 공고하게 다져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유라(문화예술 부문) 춘천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강원 소리로 전국의 소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고, 김상기(사회봉사 부문) (사)한국농사림회 이사장은 "52년 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앞으로 동곡상 수상에 걸맞은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뒷바라지해 준 부인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민일홍(교육학술 부문) 전인고 교장은 "인재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했고, 전수산(지역발전 부문)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상공회의 공익 신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축사와 수상자들이 밝힌 소



◇제18회 동곡상(東谷賞) 시상식이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최연희 동곡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회장, 한기호·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김준영 도경찰청장, 박진오(강원일보 사장)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도지사 회장, 이건설 도 노인회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김복기 강릉김씨 대종회장 등 내빈들과 각 부문별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남덕기자 ndkim@kwnews.co.kr

감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곡상을 제정한 동곡 김진만(1918~2006년) 선생의 평소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이다.

삼척 출신인 동곡 김진만 선생은 국회부의장과 대한민국 헌정회장, 7선 국회의원, 강원일보 제2대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고향 강원도가 변방

의 이미지를 탈피하길 소망했다. 그리고 강원 발전의 해답을 '사람'에서 찾아냈다. 이것이 동곡상 제정의 취지다. 이에 따라 동곡상은 각 분야에

서 활약하고 있는 향토인재들을 찾아내고 격려해 강원 발전을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김민희·김오미기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인물 21면

제18회 동곡상 시상식 참석·축하해주신 분(무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
치도의회 의장 △한기호 국
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
김준영 강원특별자치도경찰
청장 △육동한 춘천시장 △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
최양희 한림대 총장 △오성
배 강원특별자치도 부교육
감 △양희구 강원특별자치
도 체육회장 △이건실 강원
특별자치도 노인회장 △이
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
부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고광만 춘천
상공회의소 회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
지역본부장 △이재한 강원
특별자치도에총 회장 △최
찬호 강원특별자치도민예총
이사장 △최연호 춘천문화
재단 이사장 △정명자 월드
비전강원후원회장 △권남희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이
사장 △전순란 한국여성경영
자총협회 강원자치도회장 △
최찬희 강원미래여성포럼
회장 △김금분 김유정기념사
업회 이사장 △최경순 고령
사회를이롭게하는 강원여성
회장 △한경숙 강원여성100
인 회장 △김종규 춘천MBC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김동욱 강원CBS 대표 △
김영호 LG헬로 강원방송
대표 △정의선 빌텍 사장 △
김연성 강원여객자동차 사
장 △박종길 대지영농 대표
이사 △김동성 DB김준기
문화재단 사장 △김운경 강
원일보 감사 △최연희 동곡
사회복지재단 전략담당 회
장 △김기덕 동곡사회복지
재단 이사 △김승열 동곡사
회복지재단 이사 △이방웅
동곡사회복지재단 이사 △조
중근 동곡사회복지재단 감
사 △이희중 전 강원일보 사
장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
△유운소 100세대 편집인
△최용주 강원언론인회 부회
장 △심상만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 △김복기 강릉김씨
대종회장 △정문교 전 울곡
연구원장 △김숙자 전 배화
여대 총장 △전상국 김유정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임
기수 전 한국타이어춘천대
리점 대표 △이영춘 한국문
인협회 감사 △홍영숙 태평
양전쟁한국인회생자 유족회
장 △허대영 한서남궁역독
립운동사 연구회장 △유대
균 전 강원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우국제 삼척랜드협
동조합이사장 △최선근 강
원도육상연맹 회장 △임희
방 강원농원대표 △김현욱
강원대 명예교수 △최종석
전 북평초 교장 △이돈섭 대
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
회장 △오덕환 강원대학교
교수 △박영봉 청운재원장

※화환·화분·행사기·축
전 보내주신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노용호 △DB그
룹 임직원일동 △DB손해보
험 대표이사 정종표 △NH
농협은행 강원본부 △민족
중흥회 회장 정재호 △강릉
김씨 대종회장 김복기 △강
릉김씨 서울 종친회 회장 김
남희 △농협중앙회 강원본
부 본부장 김용욱 △국민
의힘 당대표 김기현 △더
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의
표 △SBS 미디어그룹 창
업 회장 윤세영 △강릉 김
씨 대종손 김동하 △대한
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
회 회장 최상순 △한림대
총장 최양희 △북평초등학교
총동문회 제26대 회장
김재민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장 임보연 △G1
방송 대표이사 회장 조창
진 △국회의장 김진표 △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정
대철 △강원특별자치도 체
육회장 양희구 △강원특별
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전인고등학교 △
바인그룹 회장 김영철



2023년 11월 14일 (화)

강원

김기홍 “레고랜드 자산 취득에 추가 혈세 지출”

김기홍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은 오늘(14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용 2,6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다시 강원도가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로선 쓸 일이 없는 놀이시설 기구 등 재산을 받게 되면, 취득세 80억 원에 운영비까지 막대한 혈세가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도공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김준우 중도공사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추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2면

중개공 적자 추산액 1년새 2배 이상 경증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김준우 대표 “자료 오류 인정”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적자 추산액이 900억원대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레고랜드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중도 부지매각도 ‘지가 상승’ 요인만 쟁하고 있을 뿐, 매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14일 GJC 행정사무감사에서 GJC가 중도 부지를 모두 매각하고도 953억원 규모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점을 따져물었다. GJC는 레고랜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강원도에 2050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953억원(46%) 규모만큼 구멍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GJC 적자가 412억원(지난해 9월)→700억~800억원(지난 3월 추정치)→953억원(11월 현재) 등으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점을 지적하자, 김준우 GJC대표는 “그당시에 자료를 뽑았던 게 세밀하지 못했던 게 맞다”고 오류를 인정했다. 이날 김대표는 적자 증가 이유로 △유적박물관 건립비용 재산정 100억원 △생활형 숙박시설 1부지



이무철

진중호

조성운

우발채무 100억원 △금융비용 등을 언급했다. GJC는 보증채무 2050억원 가운데 1097억원을 오는 2027년까지 갚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진중호(양양) 의원은 “도민들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운(삼척) 의원은 전자출판 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두고 “일선 학교에서 혼선이 있으니 일단 예산 집행을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설화



2023년 11월 14일 (화)

강원

전자칠판 사업 질타 잇따라...“감사 요청해야”

앵커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습니다.

KBS가 보도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이 감사를 자청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처음 계획과 달리 보급 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가고, 이례적인 제품 구입 조건까지 생기면서 논란이 커진 전자칠판 보급사업.

158억여 원의 대규모 사업 과정이 문제투성이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먼저, 보급 대상에 강원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왜 유치원이 포함됐냐고 따져 묻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김은숙/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 "처음 만들 때에 유치원이 안 들어갔죠? (내부적으로 협의가...). 내부적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협력관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유치원 보급의 타당성이 낮은데도, 현장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현장의 목소리가 주가 됐던 건지?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의 목소리가 주가 됐던 건지?"]

[김은숙/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 "의견은 현장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협력관실이 이례적인 조건을 단 경위에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릅니다.

[김희철/강원도의원 : "(제품 인종이) 추가되면서, 배분하면서 유치원도 집어넣었고, 그러면서 이런 의혹이 생겼고?"]

이에 대해 정책협력관은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준호/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 : "우수조달 제품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권장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신경호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거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김은숙/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 "최종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셨기에 따라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이 의혹 해소를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스스로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영준 yjkim1@kbs.co.kr

강원교육청, 도의회 행정감사서 전자칠판 사업 추진 '못매'

도 차원 감사.예산 집행 중단.조달 업체 확대 등 주문
도교육청 "부서 간 사업 의견 달랐지만 교육감이 최종 결정"



김희철 도의원 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두고 강원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의견 충돌, 대상 학교급 확대, 학교 현장에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교육 당국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영욱(홍천1) 도의원은 "전자칠판 관련 의혹에 관해 교육청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지만 명확한 해소가 어렵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1) 도의원은 "1차 수요 조사로 보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재차 조사를 거듭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승진 도의원 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교육감 인수위 시절 전자칠판 제품 시연회를 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듣지 않는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며 예산 전액 삭감까지도 의원들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춘천2) 도의원은 "도의회가 순차적 도입을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상임위가 승낙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끼어든 형국"이라며 "업체를 3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김은숙 교육국장은 "우리 부서와 타 부서(정책협력관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해서 따랐다"며 "유치원은 차후에 보급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고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과 관련해서는 "정책협력관에서는 기관별 업체가 상이해서 수리에 문제가 있고 저가형을 납품하면 비리 발생하는 다른 시도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보급 지원으로 15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영욱 도의원 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2023년 11월 14일 (화)

사회

스포츠서울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전자칠판 보급 사업 적절성’ 지적

여러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사업 중단 요청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삼척1, 사진)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보급 대상에 유치원을 배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나”며 “별도의 시범 사업도 없이, 제품 규격을 마음대로 바꾸어, 일부 업체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의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전자 기기와 연결해 수업해 활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을 내년 2월까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2,596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도의회 심의를 통해 5월 경에 158억 9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8월에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유치원에게도 보급 계획을 세워 사업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당초 전자칠판 1차 수요조사를 통해 2,596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158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또다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을 지체하고, 1차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요가 발생했으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유치원까지 넣어서, 계획을 임의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의혹이 있을 무렵,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전자칠판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해소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중지 및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acdck4021@sportsseoul.com 케이엠뉴스, 스포츠서울 등 11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에너지경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적절성·공정성 지적

조성운 의원 "여러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사업 중단"

이승진 의원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박에스더 ess003@ekn.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왼쪽)과 이승진 의원(오른쪽)은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해 적절성 및 공정성 그리고 사전 준비성 등을 지적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도조성운 의원과 이승진 의원은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적절성과 사전 준비성 및 공정성에 대해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미래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전자 기기와 연결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을 보급한다. 내년 2월까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2596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도 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 5월 경 158억 9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에 없던 유치원에도 보급 계획을 세워 사업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 2차 수요 조사를 통해 1차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요가 발생했다.

조성운 의원(삼척)은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보급 대상에 유치원을 배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냐"며 "별도의 시범 사업도 없이 제품 규격을 마음대로 바꿔 일부 업체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을 중지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의원(비례)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유치원에 대한 배정은 없었다. 갑자기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실제로 유치원 현장에서는 전자칠판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과연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상당수의 학교가 전자칠판 구입을 위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사업 추진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

2023년 11월 14일 (화)

케이엠뉴스

경기

이승진 의원,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사전 준비성 부족 및 공정성' 지적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관련해 사전 준비성 부족과 공정성에 대해 질타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관련해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더라면, 갑자기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기준이 바뀌거나, 지금과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도교육청의 준비성 부족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미래의 교실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전자 기기와 연결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을 내년 2월까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약 2,000여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도의회 심의를 통해 5월 에 158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승진 의원은, “이번 전자칠판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 준비에 대한 사전 준비성 부족과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규격을 제한하면서 특정 업체의 독식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유치원에 대한 배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유치원으로까지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실제로 유치원 현장에서는 전자칠판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과연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인지” 지적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더욱 필요하고 의미있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상당수의 학교가 전자칠판 구입을 위해 매우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엔사이드 등 21개 언론사 보도

CBS

2023년 11월 14일 (화)

강원

'좌초 위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강원도의회, '부지 무상제공' 감사 촉구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육계사업부 제공 강원 강릉시에 건립을 추진하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의회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박호균 의원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과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비 490억 원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년 11월 14일 (화)

종합

강원도의의회 "항만방제연구센터 건립 좌초...허술 행정 감사 촉구"

"500억 국책사업 관계법 임의 해석, 자의적 판단으로 추진"



경포해변의 해안침식...드러난 테트라포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는 공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인 국책사업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촉구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공동으로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한 공유재산법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건의문을 도감사위원회에 냈다.

도는 동해안 해안침식과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2018년부터 연안.항만방제연구센터 유치를 추진,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시 설계비 16억원 확보 및 투자유치협약서까지 체결했으나 3년 넘게 답보상태다.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박호균(강릉1) 도의원에 따르면 투자유치의향서에 경제자유구역청 강릉 옥계지구 내 6만6천959㎡를 센터 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돼 있으나 공유재산법상 이곳은 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법률적 검토나 공유재산심의, 도의회 승인 등 모든 필수 요건을 단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의회는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국비 5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행정행위의 허술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명성일보, 누리일보 등 42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14일 (화)

종합

양숙희 강원도의원 "스쿨존 LED 표지판에 과도한 예산지출"



양숙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의힘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춘천6)은 14일 강원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에 필수로 들어가는 고가의 발광다이오드(LED) 장비로 인한 과도한 예산지출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1천만원이 넘는 가변형 LED 표지판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도내 스쿨존이 757곳에 달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며 과도한 예산지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은 스쿨존에 어린이들이 이동이 많은 주간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운영하고, 이동량이 적은 야간과 휴일에는 시속 50로 속도제한에 변화를 주는 제도다.

양 의원의 지적에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은 "예산 문제와 관련해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지침 개정, 완화와 가변형 LED 표지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conanys@yna.co.kr

2023년 11월 14일 (화)

세계타임즈

지역

“양숙희의원, 자치경찰위원회 행감에서 고가의 가변형 LED표지판 문제 지적”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양숙희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14일 (화)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1천만원이 넘는 가변형 LED표지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시 예상되는 과도한 예산지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양의원은 “김진태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까지 10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면서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이 가지는 효과는 각종 설문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앞으로 붓물 터지듯이 도민들의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은 스쿨존에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는 50km/h로 속도제한을 변화를 주는 제도이다.

이어서 양의원은 “1천만원이 넘는 가변형 LED표지판’ 설치 및 운영비용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면서 “강원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757개소인데 향후 소요될 예산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은 “이에 대해 도경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지침 개정 및 완화와 가변형 LED표지판기술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한 후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엔사이드, 프레스뉴스 등 35개 언론사 보도

문화매일

2023년 11월 14일 (화)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아침 식사 제공 추진해야”

특성화·마이스터고 타시도 출신 학생 비율 증대 필요

이등원 기자



▲ 엄기호 의원(철원2)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증진은 물론 강원 쌀 판매 촉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각 급학교 아침 식사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엄기호 의원은 13일 열린 영동지방교육지원청 대상 행감을 통해 알게 된 바와 같이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 및 착한 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사업 검토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총원과 예산 편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편성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엄기호 의원은 강릉교육지원청 아침 식사제공이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타시도 출신 학생의 비율이 원주의료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아주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에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타시도출신 학생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의원은 학과 개편 이후 원주공업고와 소양고의 경우 학생 충원율이 100%에 달한 것이 학과 개편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 교육청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3년 11월 14일 (화)

전국 지방자치 뉴스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엄기호 의원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아침 식사 제공 추진해야”

특성화 · 마이스터고 타시도 출신 학생 비율 증대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증진은 물론 강원 쌀 판매 촉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각 급학교 아침 식사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엄기호 의원은 13일 열린 영동지방교육지원청 대상 행감을 통해 알게 된 바와 같이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 및 착한 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사업 검토 의지가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총원과 예산 편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 등의 편성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엄기호 의원은 강릉교육지원청 아침 식사제공이 학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타시도 출신 학생의 비율이 원주의료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아주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에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타시도출신 학생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의원은 학과 개편 이후 원주공업고와 소양고의 경우 학생 충원율이 100%에 달한 것이 학과 개편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 교육청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재호 기자 it8815@naver.com

미디어이슈, 뉴스썰 등 26개 언론사 보도

스포츠서울

2023년 11월 14일 (화)

사회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교육청 총액임금제 과지급으로 인한 패널티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총액임금제 과지급으로 인한 패널티 감소 대책 질의
전자철판 사립학교는 지난해 및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전자철판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같은 사립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경우 수요조사 등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숙 교육국장은 “수업료를 받는 학교의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액임금제 초과에 따른 과태료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 집행현황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교육부 인정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인원 수는 5,679명인데 반해 현 인원은 7,941명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초과 인건비 총액이 22년기준으로 440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공무원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패널티 금액이 23년 기준 11억4천5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유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인원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패널티 부과에 대해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 및 집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최상의 교육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3년 11월 14일 (화)

시사일보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김기하 의원 “강원도교육청 총액임금제 과지급으로 인한 패널티 받고 있어”

전자철판 사립학교는 지난해 및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영선 기자



▲ 김기하 의원(동해 2)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전자철판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같은 사립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경우 수요조사 등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은숙 교육국장은 수업료를 받는 학교의 경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액임금제 초과에 따른 과태료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 집행현황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교육부 인정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인원 수는 5,679명인데 반해 현 인원은 7,941명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초과 인건비 총액이 22년기준으로 440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공무원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이 받고 있는 패널티 금액이 23년 기준 11억4천5백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봉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유휴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인원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하 의원은 패널티 부과에 대해 교육청의 잘못된 관행 및 집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최상의 교육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한뉴스, 정도일보 등 29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14일 (화)

지역

세계타임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업인 현안 안일하게 대처한 농정국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소관 실국 중 농업인 대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과 현안을 다루는 농정국을 대상으로 2일 간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폭우 및 우박 등의 자연 재해, 럼피스킨, 강원 동해안 지역 벼 수발아 발생,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도내 농업인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농정국에서는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였다.

이에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의 안일한 대처를 바로잡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걸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강도 높은 2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신아일보

2023년 11월 14일 (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 농정국 행정 사무감사 실시

조덕경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소관 실국 중 농업인 대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과 현안을 다루는 농정국을 대상으로 2일 간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소관 실국 중 농업인 대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과 현안을 다루는 농정국을 대상으로 2일 간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폭우 및 우박 등의 자연 재해, 럽피스킨, 강원 동해안 지역 벼 수발아 발생,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도내 농업인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농정국에서는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였다.

이에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의 안일한 대처를 바로잡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걸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강도 높은 2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문화매일, 명성일보 등 40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3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위원들 전원이 14일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도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설화

도의회 농림수산위 '민방위복 행감' 눈길

농수위원장 “농정국 업무에 경각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14일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집행부를 상대로 한 ‘경

고성’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위원장 김용복)는 이날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소속위원 전원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농정국 업무에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라며 “국장이 바뀐 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릉시 농림축산식품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공모사업 선정을 도청 앞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라며 농정국의 보고 체계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2면

“이직 빈번한 강원문화재단 처우 개선 시급”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문화재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시급하게 고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14일 강원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오섭(강릉) 의원은 “(연봉) 3,000만원 이하 직원이 14명에 달하는 등 비슷한 규모 기관의 직원 처

우와 비교했을 때 열악하다”며 “재단 현원이 51명인데 2021년부터 30명이 이직했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이 연봉제로 전환했던 것에 요인이 있었다고 본다. 현재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 수당을 반영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농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

작, 이례적으로 이틀간 이어간다.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은 “폭우, 우박 등 자연 재해, 렘피스킨 등 농업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정국이 안 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김기하(동해)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시립 초교에 전자질관 수요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현정기자

MBC 강원영동

2023년 11월 14일 (화)

강원

"임신 중 술 강요".. 만연한 직장 갑질

조규한

막말이나 폭언.
직장 내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상급자에게 이런 일을 겪는다면
대처하기 힘들 텐데요.

강원도 곳곳에서 아직도
직장 내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차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을 했다.

애인이 사는 곳과 멀리 있는데
외롭지 않냐고 물었다.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 부서 소속 직원 여러 명이
해당 부서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사팀은 지난해
강원도인권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올해 초 부서장은 정직 3개월,
같은 부서에 있던 다른 직원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시성 / 강원도의회 의원
직장 갑질,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직원)은 지금 퇴직했죠? (퇴직했습니다.)
재단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기능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지난해 원주시청노동조합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신 중인데 술을 강요했다,
운전을 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출장을 지시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인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권 침해 사례는 20건인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직장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갑질과 괴롭힘은 끊이지 않지만,
공직 사회는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문성호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신분 보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신고) 할 수가 없고. 참거나 휴직하거나, 관두거나
다른 부서 갈 때까지 견디거나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게..

절차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사 기관은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만들어야 하고,
보복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혜인 / 직장갑질 119 노무사
정년이 보장된다는 게 오히려 괴롭힘 피해자를 옥죄는 결과가 되는 거 같아서 규정이 만들
어져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강원도 모든 시군 가운데,
갑질 방지 조례가 있는 곳은 강원도 한 곳뿐.

철원과 양구 등 일부 시군은
피해 신고 센터조차 없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갑질 #직장갑질119 #강원도 #감사



강원문화재단 감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홍천중·석화초교 이전 연내 결정

이르면 이달 여론조사 결과
내달 최종보고서 발표 가닥
남녀공학 전환은 추후 논의

【홍천】홍천 석화초교와 홍천중학교 이전 여부가 사실상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홍천군, 홍천교육지원청, 학교이전추진위원회 등은 10월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석화초교·홍천중 재학생, 학부모, 예비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지역 주민, 동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으로 늦어도 12월 초에는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교육지원청은 여론조사 결과 확인 이후 자체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학교 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석화초교는 홍천읍 갈마곡리 539, 홍천중은 홍천읍 연봉리 333-1이 이전부지로 계획돼 있다. 석화초교는 홍천읍 갈마곡리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 불편으로 인해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며 남산초교, 홍천초교의 과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홍천고와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는 홍천중 역시 홍천읍 연봉리로 단독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설문에서 함께 파악한 홍천중과 홍천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사안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학교 이전이 주요 목적이며, 홍천중 등의 남녀공학 전환은 참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이전 확정 이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욱(도의원) 석화초교·홍천중이전추진위원장은 “도시 형성에서 지역간 균형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석화초교와 홍천중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2023년 11월 14일 (화)

강원종합뉴스

정치

[정치] 이한영 도의원, 행감에서 더 나은 강원
위한 정책 주문

태백 규제자유특구 해제 후속 대책 요구
폐광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 폐기금 사업 당부
중장년층 위한 일자리 등 지원 확대 요구

손기택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태백 1)은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국, 산업국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강원을 위한 대안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날 진행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백시 규제자유특구 해제를 짚으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전에 (주)그린사이언스와 R&D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기업 등급이 어떤지 최소한의 확인만 했어도 이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도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도공통분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어느 시·군을 조금 더 주자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도공통분을 통해 폐광지 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다음 날 진행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태백 황지 상점가와 태백 중앙로 상점가는 불과 50미터 정도 근거리로 야시장이 같은 시간대에 열렸다. 여러 개의 주말 야시장이 동시에 진행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의 관리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의 이자 지원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점차 고령화되며 중장년층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들이 더욱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드론택시 사업 및 (주)그린사이언스와 사업을 진행한 강원테크노파크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타하고, 폐광을 맞이하며 대체 산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티타늄 산업에 대한 산업국의 관심을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1면

출향 강원도민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기원

출향도민과 강원공직자 함께하는

강원사랑 원팀캠페인

2024강원대회 불입 조정 다짐
전국 강원도민회 적극 참여
동해안 수산물 소비 행사 성황
세종 공직자·주민 1000여명 방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150만 출향도민이 함께 합니다.”

출향도민과 강원공직자가 함께하는 강원사랑 원팀캠페인이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김진태 지사를 비롯 정부 중앙부처 공직자와 전국 각지의 출향도민회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불입 조정과 동해안 청정수산물 소비촉진 및 강원 겨울관광홍보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원팀캠페인 메인프로그램으로 진행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불입행사는 이날 오후 코트야드 메리어트세종호텔에서 주최측인 김진태 지사,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을 비롯 정부 중앙부처 공직자와 대전·충남·공주·울산도민회 등 출향도민이 참석, 울림



출향도민과 강원공직자가 함께하는 강원사랑 원팀캠페인이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김진태 지사,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을 비롯 정부 중앙부처 공직자와 전국 각지의 출향도민회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참석자들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호

픽 슬로건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앞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수협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한 '동해안 청정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이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서 열려 세종 공직자와 지역주민 1000여명의 발길로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강원 수협이 마련한 활어회 시식회장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캠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촉진에 활로를 찾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산물전 행사장에는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시군과 대한민국대표 겨울축제 산천어축제 개최지 화천군이 참여하는 관광홍보부스이 병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강원도가

도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한 큰 힘을 얻게 됐다. 이는 재향·출향도민들을 비롯해 중앙 부처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도출신 공직자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전국민들이 강원도가 하면 역시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출향도민들과 함께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에서 도출신 중앙 부처 공직자들과 전국 출향도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강원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결집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전국민에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의미와 성공,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창현·이세훈 ▶ 관련 기사 4·7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4면

강원 출신 공직자 '2024 강원대회' 성공 지원사격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강원도민과 함께 봄엽

출향도민 한마음대회

윤석열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원 공직자들이 2024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든든한 후원군으로 나선다.

14일 코트야드메리어트세종호텔에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출향 강원도민 한마음 대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재직 중인 도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향도민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강원사랑의 의지를 다졌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마련된 전국 규모의 첫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체부에서 박성원(원주) 차관보, 박상현 스포츠유산팀장, 명수현 국제체육과장 등이 참석해 2024 강원올림픽을 향한 높은 관심을 내비쳤다. 또 김민재(홍천) 행정안전

부 기획조정실장, 최종균(강릉) 질병관리청 차장, 여중협(원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전한영(강릉)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박천수(홍천)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 김석기(동해) 국토교통부 감사관, 남궁선(홍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 도출신 출향공직자들이 대거 자리를 빛내 정부 부처 차원의 관심을 결집시켰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2024강원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자, 평창올림픽 정신을 이어가며 강원도가 다시한번 동계스포츠로 하나되는 영광을 재현하는 무대인 만큼, 대회를 향한 이들의 열기는 각별했다. 이날 주요인사들의 발언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메시지로 채워졌다. 박성원 문체부 차관보는 "강원도에서 또 하나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강원 출신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특집 07면

150만 출향도민 강원사랑 열기 활활

14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펼쳐진 '150만 출향도민·강원공직자와 함께하는 강원사랑 원팀 캠페인'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와 동해안 어업인들의 사기를 복돋기 위한 청정수산물 소비촉진에 150만 출향도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캠페인은 세종정부청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공직자와 도내 18개 시·군 대외협력관, 출향 강원도민들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날의 주요 행사를 소개한다.



14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강원도 한마음대회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특집 07면

강원 동해안 청정 수산물 안전성 전국에 알렸다

출향도민과 강원공직자 함께하느

강원사랑 원팀캠페인

수산물 소비촉진 강원인 한마당
수협중앙회 비릇 6개 조합 참여
활어회·우수건어물 선보여 호응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축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 조성
과 청정 강원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강원인의 한마당 축제가 행복복합도
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서 성황리에 펼
쳐졌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민회 중앙회가 14일 세종청사 등에서
공동 주최한 '150만 출향도민과 강원
공직자가 함께하는 강원사랑 원팀캠페인'
은 2024강원청정수산물축제를 통해 성
공개최를 지원하는 출향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위험이 우려되는 동해안 수

동해안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및 강원 겨울관광홍보전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서 열렸다. 경민현 강원도민일
보 부사장,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과 참석자들이 수산물 소비촉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호

산물의 안전성을 전국 각지에 알린 알
찬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수산물전행사장에는 한겨울을 관
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강릉·동해·속
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시군
과 대표적인 겨울축제도시화천군관광
홍보부스가 동시에 마련돼 방문객들에
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광장에서 운영된 동해안 수산물 소비
촉진캠페인은 수협중앙회를 비롯 강릉

시수협·동해시수협·삼척시수협·강
원고성군수협·양양군수협·원덕수협
등 6개조합의 싱싱한 활어회와 우수건
어물이 대거 선보여 출향도민과 공직
자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해양수산부는 최영석 수산정책실
장,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 등이 행사
장을 찾아 청정수산물을 구매했다. 강
원수산물전을 후원한 수협중앙회는 춘
천 출신 김기성 대표를 비롯 임직원들
이 시식 코너를 직접 운영하며 안전한

수산물 홍보를 위해 앞장섰다.

김 대표는 "우리 수산물은 청정 바다
에서 잡아올린 안전한 제품만을 공급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희 고성군 수협조합장은 "세종까지 먼 길을 왔지
만 맛 좋고 싱싱한 강원 수산물을 세종
시민과 출향도민에게 선보여 큰 보람
을 느낀다"며 "현장매출도 기대 이상 결
실을 거뒀다"고 즐거워했다.

수산물전과 강원겨울관광홍보전부
스를 찾은 원주 출신 박유준 기획재정

부 사무관은 "동해안 강원수산물의 맛
을 세종에서 즐길 수 있어 너무 반가웠
다"며 "겨울관광여행도 좋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장은 "이번 동해안수산물 세종캠페인
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어획 부진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수산물전에 이어 이날 오후 코트야
드 메리어트 세종호텔에서 진행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범엽행
사도 대전세종·충남·공주·울산·경기
화성 등 출향강원도민회와 세종 공직
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흥
분대사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은 "우리의 고
향, 강원도를 향한 출향도민들의 남다
른 사랑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강
원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특집 07면

도·해수부·수협 '안전 수산물 공급' 3각 공조 다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불식

"소비부진 어업인 돕는 뜻깊은 행사"

강원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 수협
중앙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
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동해안 수
산물 소비촉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민회중앙회·강원도수협조합장협의
회 주최, 강원특별자치도·수협중앙회
후원으로 14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에서 열린 '동해안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서는 동해안 어업인 및 수산업
계 상인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
동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실 실장, 권순욱 해수부 양식산업관, 정
일섭 강원도 글로벌본부장, 김기성 수
협중앙회 대표, 최영희 고성군 수협조
합장, 김경화 원덕수협 조합장, 박영록
동해시수협 상임이사, 최현일 대전·충
남도민회장, 김용철 공주도민회장, 차
명훈 경기화성도민회장, 김시중 울산
도민회장 등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강원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
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세종시민



동해안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및 강원 겨울관광홍보전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광장에서 열렸다.

김정호

및 정부청사 공직자들에게 동해안 청
정 수산물 특판전 리플릿 등을 배부하
며 동해안이 간직한 신선함을 전했다.

특히 이날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주요 내빈들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3각 공조'를 다짐했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 "대한민
국 행정의 중심인 세종에서 동해안 청
정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려 뜻깊다"며 "강원도는 현재까지 총
80회에 달하는 방사능 검사를 진행, 부
적합 사례가 단 한 것도 발생하지 않았
다.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이 지속적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
실 실장은 "정부는 국제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안전한 우리 수
산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각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함
께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춘천 출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
이사도 "한해 중 지금 시기가 조업이가
장 활발히 이뤄지는 때이다. 어촌 경제
의 활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그
런 시기에 열린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
비 부진에 빠진 우리 어업인들을 돕는
매우 뜻깊은 행사다. 수협중앙회는 어
업인들의 주 수입원인 수산물 판매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
력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1면

道, 1조8,000억 투자 지역대학·인재 키운다

내년 '대학전담기구' 신설

분산된 업무 통합 효율 극대화
경쟁력 강화 등 전폭적인 지원
강원 미래 산업 싱크탱크 활용

속보=지역 대학별로 1,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도내 2개 대학(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이 선정(본보 14일자 1·2면 보도)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대학전담기구'를 설립,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지방비 5,170억원을 비롯해 1조8,000억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센터로 지정하고 산하에 대학 전담 사업국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하반기에 센터 설치를 마친다. 본격 운영은 2025년 1월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학 지원 업무는 도청 교육법무과(글로컬대학·RISE), 일자리

과(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기업지원과(창업중심대학), 바이오헬스과(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등으로 쪼개져 있으나 이를 통합해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대학의 모든 재정 지원 사업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RISE 사업국을 통해 이뤄진다. 또 도청 교육법무과는 인재육성과로 명칭을 바꾸고 대학 지원 및 인재 육성 분야 정책 기능을 맡는다.

또 도는 대학을 향후 미래산업 육성의 싱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다. 내년부터 5년간 지방비 5,170억원을 비롯해 총 1조8,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에 5,650억원, 미래산업 및 앵커기업 육성에 4,955억원, 산학협력 기반 구축 4,895억원, 글로컬대학 육성 2,500억원을 투자한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학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2면

지속가능 대학에 선택과 집중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글로벌대학과 지역 동반성장 / (1)전국 대학이 시황

올해 초 교육부는 파격적인 대학정책을 새로 내놔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교육부 단일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고 규모인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얘기다. 올 6월 예비지정에서는 강원 지역에서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15개 예비 지정대학에 포함됐고, 지난 13일 본지정 발표에서 전국 10개 대학 중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가 이름을 올렸다. 강원 고등교육 사상 최대 패거리 지방대학으로서 위기를 딛고 지속 성장의 주춧돌을 놓게 됐다.

인구감소 등 지역 위기 심화
대학 108곳 94개 기획서 경쟁
자치도 맞춤형 지원전략 주요
강원교육 최대의 패거 평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는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쉽게 말해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모두 살릴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을 키우겠다는 뜻이었다. 전국 대학들이 글로벌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게 된 이유다.

올 6월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대학 예비지정대학에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신청),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가 선정됐다. 전국에서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고, 그 가운데 도내 3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된 것이다.

강원대-강릉원주대는 ‘1도 1국립대를 통한 글로벌 대학도시’를 제시했다. 한림대는 ‘AI 교육 기반의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열린 대학’을,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보건·의료 및 AI 산학 융합지구 개발을 통한 데이터 중심 미래형 대학’을 혁신기획서에 담았다.

본지정 평가는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다 보니 철저하게 보안 속에 이뤄졌다.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가 선정되자 학교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난 1년 가까이 총력으로 달려온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특히 지자체, 지역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빛을 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글로벌대학당 25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하고 대학별 맞춤 지원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글로벌 본지정 대학들은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미래비전,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희기자 yulinyo@kwnews.co.kr



2023년 11월 14일 (화)

강원

‘정보화마을’ 3곳 중 1곳은 폐업...“경영악화·실적저조”

앵커

대표적인 농촌활성화 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만들어 특산물을 팔고 관광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요.

정보화마을 3곳 가운데 1곳은 영업이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월 외곽의 한 시골 마을.

'마을정보센터' 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인터넷 선과 전기선들이 엉켜 바닥에 나뒹굽니다.

먼지를 뒤집어쓴 가전제품과 집기도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당시에 쓰였던 컴퓨터들은 이렇게 먼지가 쌓인 채 책꽂이에 한 데 모여있습니다.

2015년 정보화마을로 지정됐는데 운영난으로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 컴퓨터 구입과 홈페이지에 구축 등에 쓰인 5억 원은 허사가 됐습니다.

[엄기례/전 정보화마을 위원장 : "소득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시들해지는거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마을에 마침 또. 감자는 어디 가나 구할 수 있는데."]

횡성의 이 마을도 지난해 정보화마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수익이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내에 지정된 정보화마을은 60곳.

인터넷 망을 깔고 집기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곳 가운데 1곳 꼴인 20곳이 폐업했습니다.

초기 수익을 내기도 했지만, 비슷한 마을이 많아지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폐업 마을의 절반 이상이 경영 악화나 실적 저조를 호소했습니다.

운영되는 마을도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형구/영월군 전산정보팀장 : "품목이 적고. 물량이 적다보니까 전자상거래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게 고민이긴 한데 딱히 방법이 없는 게 또 현실이에요."]

강원도와 각 시군은 연말까지 정보화마을의 자립도를 파악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선 영업 종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조휴연 dakgalbi@kbs.co.kr

강원도민일보

반도체 전력·용수 인프라 1조8671억원 추산

도, 중부권 클러스터 벨트 구상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강원형 반도체 산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만 약 1조 86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과 원주시를 포함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1면

있다. 도는 경기 이천시와 평택시, 용인시 등 반도체 산업 중심지 간 인접성을 고리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 양성 협업을 목표로 한 협약을 발판으로 반도체 산업 추진에 첫 발을 뒀다. ▶2면으로 계속

강원도민일보

원주 반도체 생태계 조성 후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

▶1면에서 계속

도는 원주시 부론일반·국가산업단지, 신규 부지를 확보해 반도체 공장과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용수와 전력은 화천댐의 공업용수 전환과 동해안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평택 삼성공장을 기준으로 일일 용수 50만㎥·전력 2000MW 공급 목표를 잡았다.

도는 이같은 용수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북한강 의암호 상류에서 원주시까지 이어지는 용수 관로와 신규 변전소(신강원 변전소)·개폐소(신원주

개폐소)에서 연결되는 송전탑·가공선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예산은 각각 1조 200억원·84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기업 부담”이라면서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기반 시설 조성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주시와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단지 조성 비용은 입주 기업으로부터 걷

2023년 11월 15일 (수)

종합 02면

어들이게 되는 구조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면 국가 해당 비용을 투입하게 돼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갖춘 뒤 최종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염부하량 상향 등 규제 해소 방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오염부하량 상향은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 특성상 협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환경부 입장에서 부담이고 한강 하류지역인 지자체와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택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사설/칼럼 19면

물가 재정 인센티브로 실효있을지

-공산품 인상 억제 및 강원연구원 '실물경제' 관심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오름세가 최근엔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으면서 겨울나기 근심이 큼니다. 식료품, 외식, 각종 서비스 요금은 물론 요즘엔 공산품 가격이 뛰어올랐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나 경기지수 등에 비해 훨씬 악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가 관리가 최대 현안이 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라면과 같은 특정 품목은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엇그제(11월 13일)는 행정안전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튿날인 14일에는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책임관 지정제를 알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상·하수도료와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등 7종을 중앙과 지자체 협력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간 비교평가를 통해 특별교부세 및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통해 독려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7종에 대한 수치 관리 방식으로 교부세 등을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지도의문입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감염병 종료 직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당시엔 에너지 비용과 공공요금이 물가인상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생활필수품인 공산품 가격 및 전 부문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서비스 요금이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곧 악화되는 실물경제를 제대로 관리해 물가를 관리하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도마다 물가에 차이가 있고, 주도하는 부문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에 맞는 정책 시행이 중요합니다.

도 차원에서는 강원연구원과 함께 '물가 및 실물경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점검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충북연구원은 최신 물가동향을 비롯해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고용, 금융, 산업단지 추이까지 망라해 매월 '충북실물경제동향'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관내 음식업계와 배달서비스와의 관계성을 추적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강원연구원에서는 실물경기를 종합분석한 최신자료나 연구는 드뭅니다.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안이 바로 물가입니다. 느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15일 (수)

사설/칼럼 19면

의료원 경영난 정부가 나서야

-코로나19이후 수백억 적자 자체 해결 불가능

코로나19대응에참여했던강원 도내 지역의료원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의료진들은 속속병원을 떠나고있습니다.코로나19 전담 병원 운영은 끝났지만,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악화하고 있습니다.정부의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내년 예산안에도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역의료원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종료 후정부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회복기간을 최대 6개월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16개월 경과된 현재 병상 가동률 등 지방의료원 경영지표는 여전히 회복 못한 상태입니다.코로나19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회복기 손실 보상금으로 도내 5개 의료원이 받은 금액은 원주의료원 2억9400만원,강릉의료원 3억9600만원, 속초의료원 5억 4100만원, 영월의료원 8억1600만원, 삼척의료원 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규모로는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의료원의 적자는 이미 수백억

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올해 6월 기준 도내 5개 의료원의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의료원 101억9200만원, 강릉의료원 116억8200만원, 속초의료원 167억4800만원,삼척의료원 130억5700만원,영월의료원 146억9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코로나19이전 2019년 도내 5개 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83.6%였으나 지난 6월 기준 51%까지 감소했습니다.특히 속초의료원의 경우 28.6%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정부 지원이라고는 회복기 손실 보상금뿐이었고, 직원 월급이나 퇴직금 등은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고 있다는 것이 의료원들의 설명입니다.여기에 지난 3년간 도내 의료원 퇴직 의사는 총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중 삼중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원은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아닙니다.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뒷받침해야 합니다.정부는 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사설/칼럼 19면

강원 인재 산실 ‘동곡상’, 특별자치도 미래 밝힌다

강원 인재들을 발굴·시상하는 제18회 동곡상 시상식이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시상하는 이 상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 걸쳐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이유라 춘천시립국악단 예술감독, 사회봉사 부문 김상기 (사)한국늘사랑회 이사장, 지역발전 부문 전수산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교육학술 부문 민일홍 전인고 교장이다. 수상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분들이다. 앞으로도 강원자치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해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 올해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 수상자가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동곡상’은 삼척 출신 7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동곡(東谷) 김진만 선생이 1975년에 제정한 상이다. 강원일보 2대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진만 선생께서는 “동곡상 제정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등불이 되고 활력소 역할을 하는 강원지역의 인재가 많이 나오면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일찍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의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선견지명을 가졌던 것이다. 지방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가 요구된다. 인재 육성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훌륭한 사람을 키우고 가꾸는 일은 곧 미래를 가꾸는 일이다. 향토인재가 넘쳐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에 인재가 많아지면 그 국가는 융성한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역 사회의 앞날을 밝힐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동곡상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중단됐다. 하지만 동곡 선생의 장남인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향토애를 몸소 실천해 보여준 선친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32년 만인 2011년 제6회 시상으로 부활했다. 동곡상은 그동안 많은 지역의 인재를 배출했다. 수상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일터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며 한 분 한 분이 강원 인재의 귀감이 되고 있다. 동곡 선생은 “훌륭한 인재는 하루아침에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만민이 가꾸고 보살펴야 배출된다”고 했다. 인재 육성의 산실인 동곡상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한 인재의 발굴 및 양성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江原日報

2023년 11월 15일 (수)

사설/칼럼 19면

‘글로벌대학’ 선정, 이제 대학 미래 비전 설계를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가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 본지정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 평가 결과, 강원자치도 내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글로벌대학 선정은 자치단체, 대학, 산업체가 합심해 이뤄낸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0개 대학은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제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는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새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때문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강원대-강릉원주대의 통합은 여러 지난한 문제가 있다.

각 캠퍼스별 특성화는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 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양 대학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림대는 학습능력을 돕는 생성형 AI를 대학교육에 접목해 ‘K-고등교육’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전략이 주효해 이번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 대학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는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성장 거점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지난 50여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대학교육 시장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기록했지만 상

대적으로 질적 측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 자체가 감소함으로써 대학입학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001년 이래 출생아 수가 4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줄어들었고, 2017년 35만명대까지 감소해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36년에는 이 현실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학의 우수한 연

구성과를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실용화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창조와 사회 혁신, 정보 발신 등 봉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사

강원대-강릉원주대·한림대, 혁신해 나가야

“빠를 꺾는 구조조정·실용적인 학과 개편 등 지역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회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역 대학 소멸 위기는 지역 소멸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심각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학의 위기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의 글로벌대학 선정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은 인구 구조 분석 등 정확한 현황 인식에 의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 자체에서도 빠른 구조조정과 실용적인 학과 개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인재 양성, 대학발 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